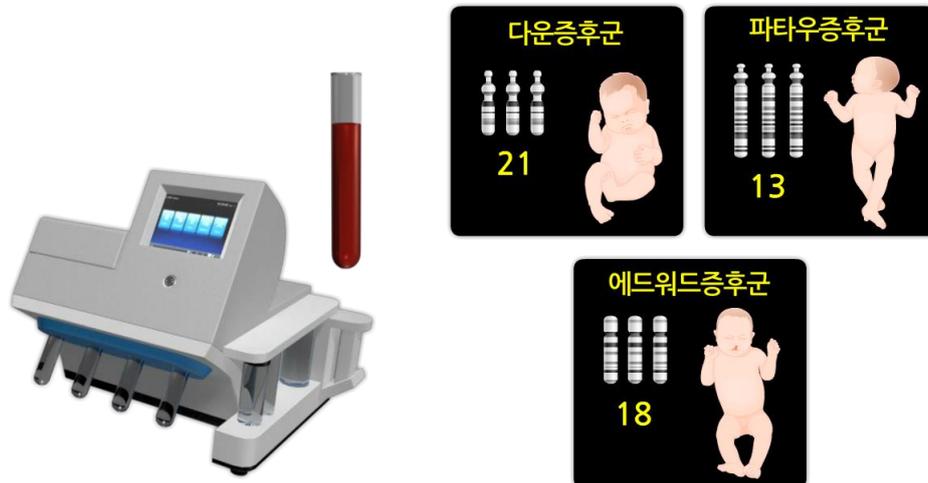


## 엠지메드,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NIPT) '더맘 스캐닝' 서비스 출시

-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 DNA 분석해 염색체 이상 조기 발견
- 임신 10주차부터 다양한 기형 질환에 대한 검사 가능



엠지메드는 보령바이오파마와 함께 자체 개발한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NIPT, Non Invasive Prenatal Test)인 '더맘 스캐닝' 서비스를 1월 17일 본격 출시하였습니다.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는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의 DNA를 분석해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태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염색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긴 바늘을 사용해 산모에게 무리를 주는 양수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검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맘 스캐닝 검사는 태아의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차세대 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이용해 검사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분석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산모 혈중의 태아 유전자 농도에 자체적으로 'MG-score'라는 경계 값을 도입해 기존 검사의 정확도를 99.9% 이상 향상시켜 더욱 정밀한 수치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아의 유전자 질환 여부를 결정짓는 경계 값 판정이나 양성판정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 엠지메드는 후속 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인 10주부터 기형 질환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다운증후군뿐만 아니라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태아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염색체 질환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전체 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6가지의 엄격한 정도 관리를 통과한 해석된 결과가 산모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